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페라리팀이 대회에 앞서 F1머신 정비 및 점검을 벌이는 등 막바지 대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상최대 '스피드 축제' 막 올랐다

영암 F1 코리아 개막 사흘간 열전

드디어 시작이다. 지구촌 6억 TV 중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14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전남의 자그마한 소도시에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것이다.

| F1 코리아 경기일정 | |
|-------------|--|
| 14일(금) | 연습주행 1(10:00~11:30) 연습주행 2(14:00~15:30) |
| 15일(토) | 연습주행 3(11:00~12:00) 예선(14:00~15:00) |
| 16일(일) | 결승전(15:00~17:00) |

목의 연습과는 달리 공식적인 대회 첫날 일정에 포함된다.

1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5일 오전 11시 세 차례의 연습 주행에 이어 15일 오후 2시부터 1~10위 출발 순서를 정하는 예선전을 펼친 뒤 16일 대망의 결선 레이스가 진행된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결선에서는 2400cc 750마력짜리 F1 머신 24대가 굉음을 울리며 서킷을 뒤흔치는 장관을 볼 수 있으며, 서킷(5.615km)

F1 특집

▶ 9~12면



55바퀴(총길이 308.63km)를 돌아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는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포트 레이스인 CJ슈퍼레이스의 연습주행과 결승 레이스도 같은 기간 펼쳐지고 대회기간 K-팝 콘서트와 F1 드라이버 사인회, 드라이버 퍼레이드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영암 서킷의 경우 18개의 코너(우회전 7개·좌회전 11개)와 1.16km와 616m짜리 직선 주도로 이뤄져 있고, 코스 평균 시속은 205.35km, 최고 스피드는 시속 330km까지 가능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22회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 일시: 2011. 10. 16(일) 10:00
 - 장소: 모교운동장
 - 주최: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 주관: 광주동신고등학교 17회
 - 연락처: 010-7573-0000
- 추진위원장 박상열
17회동창회장 정재근

위기의 광주·전남 정치권

해법은 없다

변화 이끌 인재 발굴 급선무 지역볼모 정치 더이상 안돼

위기의 광주·전남 정치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재 발굴과 육성' '뼈저린 반성에 이은 변화와 혁신'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광주일보가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주시·구의원, 정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위기에 빠진 호남 정치권을 구하는 해법'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같이 대답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박주선·이낙연 의원 등 중진들은 "호남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나은 해법은 '신진인사의 발굴과 육성'이었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배양해야 한다", 장성민 전 의원은 "호남 정치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 차세대 기대주 배출이 급선무다"고 각각 지적했다. 또 김재두 전 민주당 수석부대

변인은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고 미래의 비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젊은 인물을 키워야 한다", 김철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20명 중 40대는 2명 뿐"이라며 젊은 인재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중진 의원들도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뒀다.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인물 분위의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인물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낙연 의원은 "호남 정치인의 육성을 가려 전국적 인물은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임현모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반성의 자세와 진정성을 갖고 과감한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김병진 부위원장은 "쉽 없이 혁신하며 수권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 정치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

하다"고 각각 지적했다. 변화하는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한 세대를 이어온 민주화와 인권의 담론을 뛰어 넘어 한국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주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이용섭 의원은 "시대적 화두와 흐름에 대한 통찰한 고민과 과감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의 이병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전과 새로운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민노당 오병운 전 사무총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서 대중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야 한다", 김보현 광주시의원은 "명확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각각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청정개발체계>

도시환경지표·CDM 도입 의무화

'광주선언문' 채택...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폐막

지난 11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2011 도시환경연합(UFA) 광주정상회의(이하 광주정상회의)'가 13일 지구 환경의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세계 115개 도시 간 협력 방안과 약속을 담은 '광주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광주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UFA회원도시연합 초대대장에 강은태 광주시장 선출됐으며, 2013년 차기 정상회의는 미국 샌안토니오시

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2·18면> 특히 광주선언문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광주시가 공동개발중인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참가도시들이 도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물론 광주의 선진환경정책인 탄소은행제도를 공유할 것을 주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날 광주선언문 채택과 함께

참석도시 정상과 대표단 등은 다음달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선진국 정상에게 ▲지방에 대한 지원 강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 집중 ▲도시환경 평가지표와 도시 CDM 적용 인정과 논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선언문을 통해 참가도시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우선순위로 다루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지식기반 강화를 다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2011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뉴알티마+, 1년치 주유비를 해결하다

SHIFT the way you move NISSAN

NISSAN 광주전시장 Grand Open!

이제 광주에서도 닛산 차량 구입부터 A/S까지 One-Stop Service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NISSAN 공식딜러 프리마모터스

광주전시장_ 062)221-7000

www.nissan-primamotors.co.kr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20-12번지

